

# 민주당·국힘 도의원 공천 당내 ‘파열음’

### 더불어민주당, 단수 신청 현역의원 2명 공천 제외 국민의힘은 서귀포 1개 선거구 후보 간 갈등 격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의원 단수추천 선거구를 발표했다. 단수 후보 신청 7곳 중 5곳이 선정됐으나 제주도 노형동갑(양경호 의원)과 한경면·추자면(김승준 의원)은 명단에 들지 못했다. 민주당 공판위는 이 두 곳에 대해 “범죄 이력 등 서류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았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다른 예비후보가 공판위 심사를

통과해 단수 공천됐다는 점에 서 의문이 제기됐다.

양경호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이미 지난 선거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선에 참여했으며 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심판을 받은 사항이라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며 “아주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가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단수 후보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승준 의원도 “지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았고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었으면 하

는 바람”이라며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공판위 관계자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모든 범죄를 똑같이 보지 않고, 같은 전과라도 관련 법 제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며 “조만간 회의를 열고 후보를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강상수 의원은 같은 당 비례대표인 강하영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판위가 전례 없는 긴급 심사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강하영 의원은 이번 여론조

사를 두고 강상수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라며 경선 불발 시 가져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하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도당에서 당사자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경선을 치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여론조사는 강상수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직격했다.

강상수 의원은 “이전부터 경선을 반대해 왔다.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같은 당 후보가 경선을 치르자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이번 여론조사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두 의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해 경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도의원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18) 제주시 애월읍갑 선거구

### 현역 고태민 의원 불출마... 1대1 구도

#### 더불어민주당 장정훈 재도전 “지역 더 크게 발전시킬 것”

#### 국민의힘 강재섭 도전장 “32년 공직생활 경험 장점”



장정훈 강재섭

제주시 애월읍갑 선거구의 경우 현직인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1대1 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태민 의원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신 장정훈 예비후보(60)가 재도전에 나선다.

장 예비후보는 “최근 AI시대에 발전하는 애월읍, 스마트 애월읍, 그리고 마을활성화로 발전하는 애월읍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관광학박사, 공학박사 등 제 전공과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및 학문 연구 등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한담 지역 교통난 문제 해결 ▷이주민 유입에 따른 소통 문제 해소 ▷LNG(액화 천연가스) 배관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며 “AI시대 애월읍의 미래 비

전과 발전을 제주도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애월읍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치인의 길을 택한 강재섭 예비후보(60)가 도전장을 던졌다.

강 예비후보는 “32년 공직생활 동안 쌓은 행정경험으로 애월읍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며 “저는 어느 서랍에 애월의 숙원 사업예산이 숨어 있는지, 어느 조례를 고쳐야 우리 농민들의 규제가 풀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제가 그 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전부 쏟아부어 애월읍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보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보도, 정리-헤드라인제주 홍창민기자>

### ‘교육자치 시민의회 구성’ 고의숙 교육감 예비후보

6·3 지방선거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가 25일 “제주교육자치 시민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의숙

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의원제가 없어진다”며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놨다.

고 예비후보는 “매년 회기를 정해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되는 시민의회를 운영하겠다”며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을 토론하고, 예산의 배분과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김광수 교육감이 읍면지역 학교의 요구를 외면하고 도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비교육적 소통을 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제주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교체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중동 사태 여파... 페인트 전격 인상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영향으로 페인트 제조 단가가 상승하며 페인트 제품 가격 인상이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의 한 시장의 페인트 판매 업체.

###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재산 모두 늘었다

####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 공개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의 재산이 지난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국회의원 정치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해 신고액 15억4983만원보다 3억1000만원 증가한 18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신고액 58억4000만원보다 10억3000여만원이 증가한 68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해 5억2767만원보다 3500만원 증가한 5억62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부미현기자

###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내일 개막

도, 오는 11월 22일까지 4개 테마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행사를 진행한다.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개의 테마(제주의 꿈·제주의 자연·제주의 사람들·탐라순력)에 따라 모두 100개의 제주 국가유산을 탐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자는 핵심 코스(36개)만 완주하거나 핵심·일반 코스를 모두 도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각 국가유산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마다 인증 스탬프·스마트폰 앱·휴대전화 사진 등

으로 탐험을 인증하고, 완주하면 제주시 향사당 방문자센터 ‘섬광’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4월과 6월, 8월, 10월 마지막 주에는 1박 2일 체행, 달빛 기행, 테마 탐방 등 유산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헤리티지 워크’도 운영된다.

개막 행사는 27일과 28일 제주국제공항과 향사당 방문자센터 ‘섬광’, 성산일출봉에서 각각 열린다. 특히 방문자센터 ‘섬광’에서는 한정판 인증수첩 400부가 배부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 제2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 공모분야**
  - 제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스토리가 있는 상품
  - \* 제주어, 제주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 먹거리, 관광 명소 등
- 공모부문**
  - 일반 / 프리미엄 / 학생 아이디어 (3개부문)
- 총시상금** 1,700만원
- 접수기간**
  - 서류접수: 2026. 4. 13.(월) ~ 4.17.(금) / 10:00 ~ 18:00
  - 실물접수: 2026. 6월 중
  - \*서류심사 통과작 한하여 접수
  - ※ 학생 아이디어 부문은 서류접수로 한함
- 문의처**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064-710-3346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064-741-8736

응모자격, 접수방법 및 입상자 특전 관련 내용은 QR 코드 및 공고문 (자세한 사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자세한 사항) 확인

- 1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 2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공지사항”
-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홈페이지 (metajejuisland.or.kr) “공모전소식”

### 삼육두유

##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msu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땀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 예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묘목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